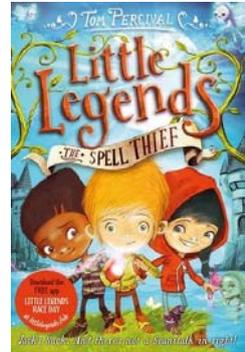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ITTLE LEGENDS SERIES
가제 : 꼬마 전설들 시리즈
저자 : Tom Percival
출판사: Macmilla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6년 2월 11일(1, 2권)
분량 : 176 페이지(1권)
장르 : YA 소설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 속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마을’, 작은 주인공들이 펼치는 모험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한 마을에 모두 모여 산다면 어떨까? 조용한 항구 한 쪽에 자리한 ‘이야기 마을’에는 온갖 이야기에 등장한 마녀와 늑대, 용, 요정들이 함께 살고 있다. 빨간 모자를 쓴 레드, 땅에 달기만 하면 하늘까지 금세 자라는 콩 나무를 씨앗을 가진 잭,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고집불통 아버지 늑대 때문에 고민인 울피, 남들과 다른 부모님에 관한 비밀을 간직한 아난시, 마을의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라퐁젤, 이 다섯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 펼치는 모험이 네 권의 시리즈로 완성될 예정이다.

나무들로 울창한 마법의 숲이 한쪽에 우거지고 반대쪽에는 항구가 자리한 이야기 마을에는 개성 만점 주인공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섞여 있다. 조금만 걸어 가면 광장을 뛰어다니는 진저브래드 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난쟁이 롬펠슈틸츠킨이 어디선가 푹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타고난 대장인 밝고 명랑한 소녀 레드는 남자아이들 못지 않게 달리기 실력도 엄청나고 성격도 좋아서 늘 친구들이 따른다. 레드는 여행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 마을의 숲 속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다혈질에 잘 웃는 소년 잭은 사람과 말할 줄 아는 신기한 닭 벅시와 늘 함께 다닌다. 땅에 달기만 하면 거대하게 자라는 마법의 콩을 가진 잭은 왕궁에서 일하는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마을 왕궁의 공주 라퐁젤은 타고난 말썽쟁이다. 긴 머리를 짧아서 늘어뜨리고는 양전하게 행동하지만, 라퐁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꾀가 넘치는 소녀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거대하고 못된 늑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숲 속 동굴에서 지내는 울피도 이야기 마을에 살고 있다. 아버지와 달리 늘 신중하고 착한 울피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1권. 마법 도둑(The Spell Thief)

조용한 이야기 마을에 새로운 친구가 이사를 왔다. 아난시라는 이름을 가진 명랑한 남자아이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지만 유독 잭은 아난시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평소 누구보다 새 친구를 잘 사귀는 잭이었지만, 울창한 숲 속 으스스한 곳에서 아난시가 트롤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트롤은 사람들이 늘 꺼려하는 괴물인데, 아난시는 그런 트롤과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잭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난시가 트롤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급기야 잭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떠올린다. 마법을 훔쳐서 자기 생각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과연 잭은 아난시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과 트롤과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까?

2권. 거대한 트롤의 구조 작전(The Great Troll Rescue)

라퐁젤과 아난시, 잭은 잭의 애완 닭 벵시와 함께 못된 마녀의 손에 걸려들어 그만 높은 탑 안에 갇히고 만다! 친구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레드 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마녀의 착한 조수 엘라가 도와주기로 했지만, 레드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마녀가 잡아들인 이야기 속 마법의 존재들을 다 구출해내야 한다. 그런데 붙잡힌 존재들 속에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트롤도 섞여 있었다. 과연 레드는 이 험난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탐 퍼시벌(Tom Percival)은 영국 슈롭셔에서 전기와 수도 없이 작은 캐러반을 집으로 삼아 살고 있다. 동화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제목 : PAPER BUTTERFLIES
가제 : 종이 나비
저자 : Lisa Heathfield
출판사: Electric Monkey
발행일: 2016년 여름
분량 : -
장르 : YA 소설



갈혀 버린 나비처럼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열 살 소녀, 희망이 되어 준 친구

학교에 가야 하는 바쁜 아침, 준의 엄마는 큰 컵에 담긴 우유를 내밀며 준에게 마시라고 한다. 이미 한 컵을 마신 후라, 목도 마르지 않고 배도 꼭 찬 준은 전혀 마시고 싶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엄마는 준을 이렇게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엄마는 일어나면서부터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지금 몇 컵째 우유를 마시라고 강요했다. 방광이 꼭 차올라 눈까지 따가울 지경인데, 슬며시 미소까지 떠오른 얼굴로 무조건 컵을 들이밀기만 하는 엄마. 물러설 곳이 없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준은 꾸역꾸역 우유를 마실 수 밖에 없었다. 스쿨버스를 놓치기 직전에야 풀려난 준은 엄마의 또 다른 딸 매건과 함께 집을 나선다. 제발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해봤지만, 소용 없었다. 걸기도 힘들어서 버스에 겨우 오른 준은 온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주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버스에 앉아 소변을 보고 말았다. 버스가 가는 동안에는 숨길 수 있었지만, 학교에도착해 옆자리에 파올라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코를 찌르는 오줌 냄새, 축축히 젖은 시트를 보며 파올라는 비명을 질러댔고, 버스에 가득 탄 모든 아이들에게 금세 알려지고 말았다. 바지가 다 젖은 채 어기적거리는 준에게, 누구 하나 다독여주는 친구는 없었다. 기저귀 차야 할 나이냐고 비웃어대는 아이들 틈에 섞여 놀림감이 되어버린 준. 하지만 이 날만 특별히 괴로운 건 아니었다. 준에겐 매일매일이 이런 고통의 연속이다.

사실 엄마는 준을 낳은 친 엄마가 아니었다. 새엄마가 데려온 매건까지 한 집에 사는 준은 같이 사는 아버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모진 구박과 학대를 견디며 살아 왔다. 이게 겨우 열 살이 된 준은 갈혀 있는 동물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모진 생활을 혼자 견뎠다. 좁은 철장에 갈혀 날개를 퍼덕이는 나비가 된 것 같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그런 준에게 희망의 씨앗이 나타났다. 어느 날, 준은 숲 속에서 블리스터라는 남자아이를 만난다. 혼란 그 자체인 블리스터의 가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준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저 멀리, 훨훨 날아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희망과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 때는 몰랐다.

자유를 찾아 훨훨 날아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새로운 형태의 신데렐라 스토리

준과 블리스터의 만남은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어린 아이들의 진한 우정으로 시

작해 돌이 점차 커가면서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늘 꺾꺾 참기만 하며 살았던 준은 블리스터에게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위안을 얻는다. 숲 속 캐러반에서 사는 블리스터의 가족들, 그곳은 좁고 답답한 공간이지만 준에게는 동화 속이나 나올법한 사악한 계모가 없는 것만 해도 천국과 같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조용히 다가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입으로 개처럼 먹으라고 시키는 그 엄마가 없는 곳, 틈만 나면 심한 말로 모욕을 주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피부에 하얀 물감을 칠하는 못된 아이들이 없는 곳, 블리스터와 함께 하는 공간을 바로 그런 곳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내면은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준의 계모, 그리고 준의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 아빠.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틈바구니에서 홀로 곳곳이 견디는 준과 준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리스터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신데렐라 스토리이자 잠시 팔에 앉았다 간 나비처럼, 독자의 의식에 오래도록 깊은 자국과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리스 히스필드(Lisa Heathfield)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첫 작품인 『Seed』는 체코,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출간됐다.